

프라임경제

남해 독일마을 '플라워 카펫 이벤트' 개최

맥주축제 연계... 포토존·꽃거리 경관 조성, 풍성한 즐길거리 제공

기사입력 2024.10.02 09:27:28 | 최종수정 2024.10.02 09:27:28 |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프라임경제]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이 10월2일부터 5일까지 독일마을 일원에서 남해독일마을 플라워 카펫 이벤트를 개최한다.



해 첫선을 보이는 '남해독일마을 플라워 카펫 이벤트'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경상도·남해군·남해관광문화재단이 함께 추진한다.

플라워 카펫 이벤트는 △꽃을 활용한 플라워 카펫 공간 조성 △꽃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크게 2가지 부문으로 진행한다.

플라워 카펫 공간 조성을 통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진입로인 화암주차장에서 독일마을 광장까지 700m 구간에 꽃 화분과 조명을 설치한다.

꽃길을 따라 축제 메인공간인 독일마을 광장 입구에 도착하면 이번 플라워 카펫의 상징물인 메인 플라워 카펫을 만나 볼 수 있다.

메인 플라워 카펫은 폭 6m, 길이 16m로, 독일마을 대표 연상 키워드인 대형 맥주잔 모양으로 연출됐다. 메인 플라워 카펫은 독일마을 광장 입구 아치와 어울려 맥주축제 기간 독일마을 중심 포토존 역할을 수행한

다.

또 독일마을 골목길에 꽃모양의 오브제와 꽃 화분, 포토존 등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독일마을의 숨은 매력을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플라워 카페트 체험 프로그램은 (구)완벽한 인생 주차장에서 맥주축제 기간인 2일부터 5일,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남해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생화 그림톡·생화 볼펜 만들기, 미니 꽃다발 만들기 체험 등도 진행한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남해 독일마을 맞은편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예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원예예술촌이 위치해 있다"며 "꽃이 많아 남해가 화전(花田)이라 불렀던 만큼 꽃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독일마을에 접목해 독일마을의 새로운 이미지를 브랜딩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우 기자 (kkw4959@hanmail.net)
Copyright © 2005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